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 발족

무주군·전북자치도·태권도진흥재단, 3개 기관 구성… 태권 시티 도약 기대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권도원 운영을 위한 협조·소통 체계 구축,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및 예산확보 시너지 창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협의체는 앞으로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 추진, △기관별 태권도 주요 현안 사업 정보 공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무주군, 나아가 전북의 핵심 자산”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군과 도, 재단이 같이 태권도원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력을 높이게 된 만큼 태권 시티 도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현실화하는 동력 또한 될 거라고 확신한다”라며 “태권도원과 무주군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발족했다.

아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권도원 운영센터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신성일 사무총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엄현미 체육정책과장,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 등 세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협의체 구성 목적 및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관·학 ‘장수교육’ 로드맵 구상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장수교육 원탁토론회’ 성료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는 군민회관에서 2025년 장수교육 원탁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학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수지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장을 비롯해 지역 리더, 교육 전문가, 학부모, 학생, 관련 유관기관·단



체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장수교육의 현황 진단 및 문제 인식 분야별 과제 도출 조별 발표

와 단계적 실천방안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실현가능한 장수교육 로드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관·학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장수군의 다문화비율이 전북에서 제일 높다”며 부모교육, 영유아 대상 모자동안 한국어 교육, 교사 대상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원탁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였다”며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장수교육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토마토 빨나방 확산 차단 총력

진안군은 급증하고 있는 토마토 빨나방(학명: Tuta absolu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농가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외래 해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진안군은 지역 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 2종을 즉시 공급하고, 공동 살포를 통한 집중 방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마토 빨나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군의 결단으로, 농가들 역시 빠른 시일 내 방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은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농가에 신속하게 약제를 공급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3월 21일에 방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집중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약제 살포에 나섰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농산물수급·가격안정 기대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식품부 ‘생산유통 통합조직’ 최종 승인

장수군은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철화)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은 원예 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 조직으로 농산물 생산의 일원화·규모화를 이루고 품목별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해 원활한 농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육성하는 조직이다.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과실류의 경우 총 위급액이 80억원 이상, 시설원예품목의 경우 60억원 이상과 전속취급률 5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여조직인 장수농협, 장계농협, 장수사과원에농협과 같이 준비해 왔으며 이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군의 주요 재배 품목인 사과와 토마토가 전문품목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번 승인으로 장수군은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신규자금 30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총 85억원의 자금을 1.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자금은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운영자금에 활용되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이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승인은 장수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자 조직인 지역 내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며 “승인을 계기로 장수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해 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Y-FARM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진안군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과 정착 지원 방안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와 35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위키홀리데이 IN 전북’ 신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성공적인 귀농귀촌 사



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군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 부스에서 △귀농귀촌 정책 소개, △주택·농지 정보 제공, △현지 정착 사례 공유,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5월 가정의 달 맞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와룡·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와룡자연휴양림에서는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치유의 숲’에서 숲길 걷기 명상, 아로마 테라피, 숲속 요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자연놀이와 감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11일

까지 정기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8일간 진행되며 전화예약(063-353-1405)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방화동 자연휴양림 야외에서는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 숲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적·놀이적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5일과 6일을 제외하고 상시 진행되며, 전화예약(063-350-2475)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무주군은 오는 5월 14일까지 2025년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임차료, 홍보비,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구축, 채용·알선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무주군 내에서 창업이 가능한 자 등의 자격요건(무주군청 누리집 참고)을 갖춘 예비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특화 교육(6시간)을 실시해 90% 이상 이수하면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최종 선발된 7명에게 창업 사업비 최대 1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무주군로컬JOB센터(063-322-9297), 또는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hanoh1567@kijon.ac.kr)로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교육 실시

진안군은 청년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5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3층 소교육장에서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8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조사업의 집행 절차와 정산 요령, 사후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보조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창업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